국외출장 결과보고

방통위 베트남 ·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출장 결과

- 한-베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인니 방송통신 정책협력 강화 등 -

◆ 기　　간 : 2019. 3. 25. (월) ~ 3. 29. (금), 3박 5일

◆ 방문국가 :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19. 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출장 개요

Ⅱ. 세부 활동

1.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 3

2. 베트남 공영방송사 VTV 방문 ····· 15

3. 베트남 총리 면담 ····· 23

4. 베트남 현지진출 사업자 간담회 ····· 28

5.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양자면담 ····· 34

6. 인도네시아 미디어그룹 MNC 방문 ····· 41

Ⅲ. 홍보 성과

1. 보도 자료 ····· 46

2. 언론보도 현황 ····· 49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한-베트남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베트남·인도네시아 정부간 협력 강화 및 우리 방송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2. 출장 국가 :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3. 출장 기간 : '19년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3박 5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이 효 성
2	방송기반국	국 장	양 한 열
3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장(서기관)	박 명 진
4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사무관)	박 민 성
5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주무관)	이 화 영
6	기획조정관	홍보담당관(서기관)	진 성 철
7	운영지원과	수행비서(사무관)	양 해 웅

※ KISDI 원장 외 2인, EBS 사장 외 4인, KISA 1인, 기자단 8인 등 동행

5. 주요 활동

o **(한-베 공동제작협정 체결)**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

※ 대통령 재가(2.20.) 및 서명 전권 위임(3.21.)을 받아 국가간 협정으로 진행

-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작 TV 프로그램이 한-베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베트남에서의 국내물 편성 규제 미적용 등 협정의 혜택을 받고 우리 방송 콘텐츠의 안정적 편성이 가능해짐

o (**정부관계자 면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핵심 정부관계자를 면담하여, 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지속적 협력 채널 가동에 합의

- 베트남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공동위원회 출범,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참여 등 협정 체결 후 구체적 후속조치 추진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방통위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베트남특별관 운영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에도 합의

-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를 예방하여, 양국간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율리안드레 다르위스(Yuliandre Darwis) 위원장과 한-인니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국장급 협의체 등 구성에 합의

o (**방송사업자 면담**) 베트남·인니 방송사업자들과 방송 콘텐츠 교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

- 베트남 국영방송 VTV를 방문하여, 협정체결 직후 최초로 제작되는 EBS-VTV 간 공동제작 MoU 체결이 성사되도록 지원

- 인니 최대 미디어그룹 MNC그룹 회장단과 한국 방송콘텐츠의 인니 공동제작 확대 방안을 논의

6. 선물수령 관련

o 선물 수령 여부 : 수령(기념 항아리 2점 및 로고패 1점)

o 선물 신고 여부 :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으로 미신고

Ⅱ. 세부 활동

1. 한 · 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 일 시 : ’19.3.26(화) 10:00~12:00

□ 장 소 : 베트남 정보통신부 1층 대강당

□ 참석자

o (한국측)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등 7인
KISDI 김대희 원장 등 3인
EBS 김명중 사장 등 5인
주베트남한국대사관 김도현 대사 등 2인
방통위 출입 기자단 8인 등

o (베트남측) 정보통신부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장관
호앙 빙 바오(Hoang Vinh Bao) 차관
판 타오 응우옌(Phan Thao Nguyen) 국제협력국장 등 13인 등

□ 핵심 내용

o **(한-베 공동제작협정 체결)**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작 TV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의 국내물 편성 규제 미적용, 제작비 지원, 출입국 및 제작장비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우리 방송 콘텐츠의 안정적인 베트남 진출이 가능해짐

o **(정부관계자 양자면담)** 베트남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공동위원회 출범,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참여 등 협정 체결 후 구체적 후속조치 추진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방통위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베트남특별관 운영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에도 합의

□ 세부 면담내용

인사말

o **(정보통신부)** 오늘 베트남 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주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을 바롯한 한국 대표단 분들께 감사드림

-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 K-POP, 패션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양국이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함

- 최근 양국 방문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TV 공동제작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더욱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o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보통신부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2016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 개시 후 총 다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8년 가서명을 하였음

- 그 후 양 기관은 각각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방통위는 외교부로부터 협정체결 전권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왔음

- 그동안 방송분야에서 한-베트남이 협력하여 '오마이 베이비', '러브 앳 퍼스트 송'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 '내 동생은 0살'과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함

- 오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베 TV 공동제작물은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한-베 공동위원회 결성

o **(정보통신부)** 오늘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양국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베트남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여 참여하겠음

- 현재 베트남에는 중앙/지방에서 약 70여 개 방송사가 있는데, 양국 방송사들의 협력을 위해서도 공동위원회가 필요함

o **(방송통신위원회)** 협정체결 후 양국 정부 및 방송사 등 모두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함

- 공동위원회는 협정문 제9조에 양측 고위급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급 회의를 통해 구성·운영 및 의제 등의 밑그림을 잡아가면 바로 실행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고위급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방송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양국 방송콘텐츠 교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함

< 한-베 공동제작협정에서 공동위원회 >

제9조 제도적 매커니즘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지정 당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적절한 고위 관리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한-베 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 관련

o **(정보통신부)**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된 후 양국의 TV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어, 더욱 많은 양국의 방송사에서 방송되기를 원함.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한-베 방송 공동제작 사례 >

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	장르	공동제작 베트남 방송사
EBS	내 동생은 0살('15년~'16년) 미래인교육('17년) 학교가는 길('18년)	다큐 멘터리	VTV7
SBS	오마이 베이비('16년~'18년)	예능	HTV
	런닝맨('19년, 예정)	예능	HTV
CJENM	오늘도 청춘('14년~15년)	드라마	VTV, Channel M
	러브 앳 퍼스트 송('18년)	예능	VTV3

< 오마이베이비 베트남편('16~'18) >

o SBS와 베트남제작사 라임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제작한 육아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방송사 HTV 및 VTVCab1을 통해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음(시즌1 및 시즌2 방영)

o 육아용품, 의류, 화장품 등의 PPL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

- 특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베트남 회사들이 많음

- 오늘 방송통신위원장님과 면담을 계기로,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향후 워크숍, 세미나, 연수/트레이닝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o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기술, 언론, ICT 변화와 관련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함

- 공동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하여 양국 참여 주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특히 한국의 유관기관·단체·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좋은 연수 프로그램에 베트남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베트남도 와이파이가 상용화되고, 통신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모바일을 통한 방송시청이 증가했을 것이라 생각함. 이런 현상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 특히, 올해 6월 예정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베트남 특별관'을 운영하여, 양국 지역 방송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보통신부에서도 베트남 방송사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람

<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요 >

o (일시・장소) 2019년 6월 19일(수)~20일(목), 누리꿈스퀘어 (상암동)
o (제　　목) **"Collaboration across Borders and Technologies"** **"콜라보레이션, 국경과 기술을 넘어"**
o (베트남 특별관) 한-베 공동제작협정 체결 이후, 양국 사업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협정의 실질적 혜택 창출을 위해 운영 - 베트남 방송시장 공유 및 방송사 소개,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및 계약 체결 지원 등

o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한-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는 유사점이 많음.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베트남 정부는 e-government 사업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정함.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최선을 다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음

o **(EBS)** EBS는 베트남 VTV7과 그동안 학교 교육개발 콘텐츠, 다큐멘터리 등 공동제작을 해왔음. 이번 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가칭) 즐거운 나의 집(Our Sweet Home)'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할 예정임

- 앞으로도 EBS는 베트남과 실질적 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KISDI)** KISDI는 베트남 국립정보통신정책연구원(NIICS)을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양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연구에 계속 협조하겠음

o **(정보통신부)** 양국간 ICT 협력/발전처럼 방송분야도 발전하여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함

- 앞으로도 EBS와 VTV7이 협력하여, VTV7도 EBS처럼 좋은 교육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림
- 또한 연구 측면에서 KISDI와 같이 협력하길 희망함.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NIICS가 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NIICS에서 KISDI에 연락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음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관련

o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관련 글로벌 공통이슈에 대한 논의체인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임

- 여기에 베트남 정부, 사업자, 연구원 등도 참여하여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함

o **(정보통신부)** 말씀하신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 그룹에 베트남 정보통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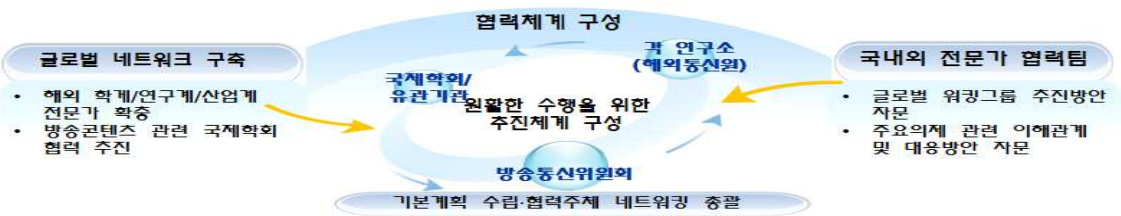
<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개요 >

o **(개념)** 방송콘텐츠 관련 글로벌 공통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체'

o **(사업내용)** 각국별 방송정책 담당부처(공무원), 방송사업자·연구기관·학계·애널리스트·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Pool을 구성하여,

- 주제별 적임자가 논의에 투입되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각국 입장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

o **(기대 성과)** 논의된 아젠다들은 국제방송기구나 연관된 국제기구 등에 의제로 발의, 방송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한국의 방송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베트남 채널 방송 관련

o **(정보통신부)** 베트남에서 방송되고 있는 약 300여 개의 채널 중에는 KBS월드, 아리랑TV 등 한국채널이 있음

- 한국에서도 베트남 채널이 방송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제안드림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에서의 베트남 채널 방송 관련하여 방통위가 방송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채널 운영을 명령할 수는 없음

- 다만 정부차원의 협조와 관련된 사안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음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식

o **(정보통신부)** 한국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식을 개최하겠음

- 방통위와 정보통신부는 국가간 협정 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아, 2019년 3월 26일 하노이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 협정 체결로 방통위와 정보통신부 간 협력이 한층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함

이후 협정체결식 개최

<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식 개요 >

o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11:00
o **(서명권자)** 한국측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베트남측 : 응우옌 마잉 훙 정보통신부 장관
o **(협정체결식 순서)**
- 전권위임장 교환 → 자국 협정문 서명 → 상대국 협정문 서명 → 협정문 교환
※ 각각 한국어본, 영어본, 베트남어본으로 된 협정문에 서명

< 붙임 1 >

한 · 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주요 내용

□ 체결근거 및 구성

o **(체결근거)** 한·ASESN FTA('07년 6월 발효)를 근거로 하여 한·베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한·베 공동제작 협정 체결 근거 규정>

한·ASEAN FTA 서비스 협정 제4장 제27조(기타 조항)

5.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생산에 관하여 한국과 각자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양자 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에게만 적용된다.

o **(협정문명 및 구성)** 협정문명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이며 총12개 조로 구성

□ 협정문 세부내용

o **(제1조 정의)** 공동제작물 범위, 공동제작자, 법인, 국민 등 정의 규정

o **(제3조 혜택에 대한 권리)** 승인된 공동제작물은 자국 TV 프로그램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

o **(제4조 기여)** 창의적·재정적 기여비율(최소 10%이상)을 규정하되,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

o **(제9조 제도적 메커니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하고,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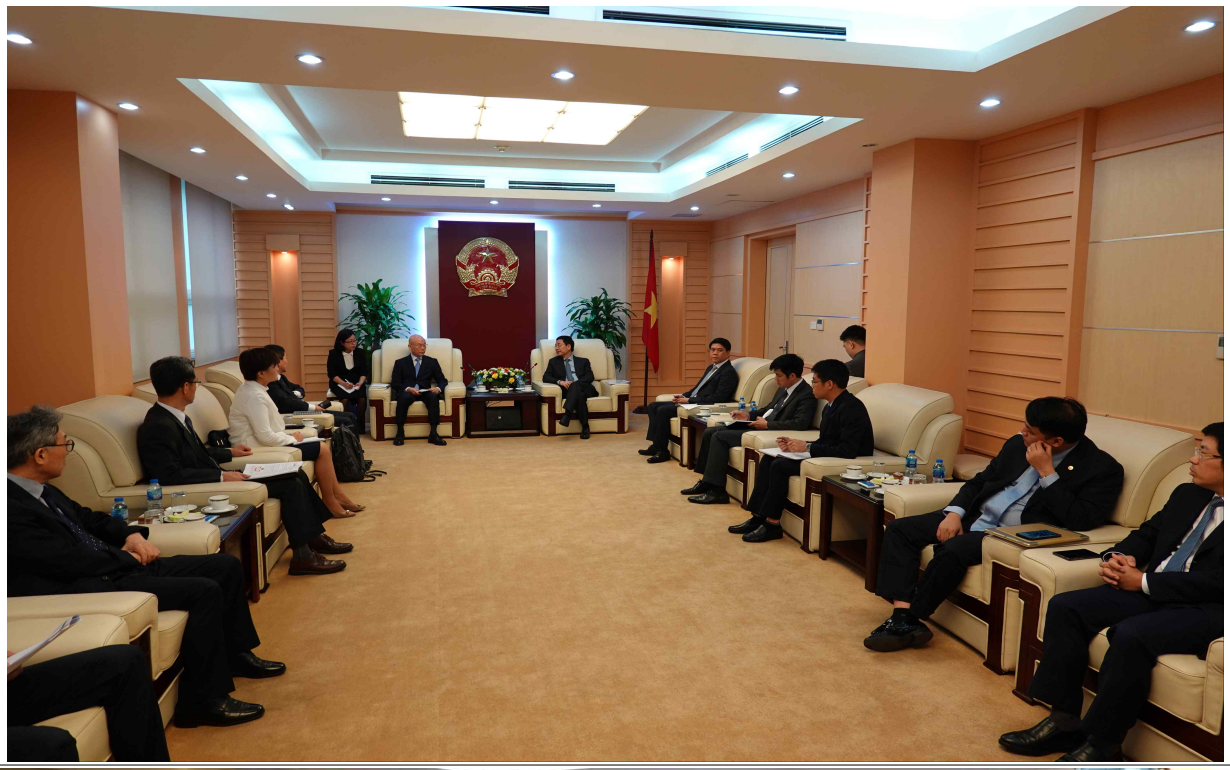
※ (권한 있는 당국)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베트남의 경우 정보통신부** 또는 그 승계기관

o **(제10조 분쟁 해결)**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상호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함을 명시

o **(제11조 발효 및 개정)** 협정문의 지위, 발효 시기, 개정 절차 등을 규정

< 붙임 2 >

한국 방송통신위원장-베트남 정보통신부장관 양자 면담



< 붙임 3 >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공식문서

대 한 민 국
외 교 부

전 권 위 임 장

본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씨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본인은 이천십구년 삼월 이십일일 서울에서 이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을 날인하였다.

외교부장관인

외 교 부 장 관

강경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Translation)

FULL POWERS

I, Kang, Kyung-wh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do hereby certify that Mr. Lee Hyo-seong, Chairma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vested with full power and authority to sig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

IN WITNESS WHEREOF, I have signed and sealed these Presents at Seoul, this twenty-first day of March in the year of two thousand and ninet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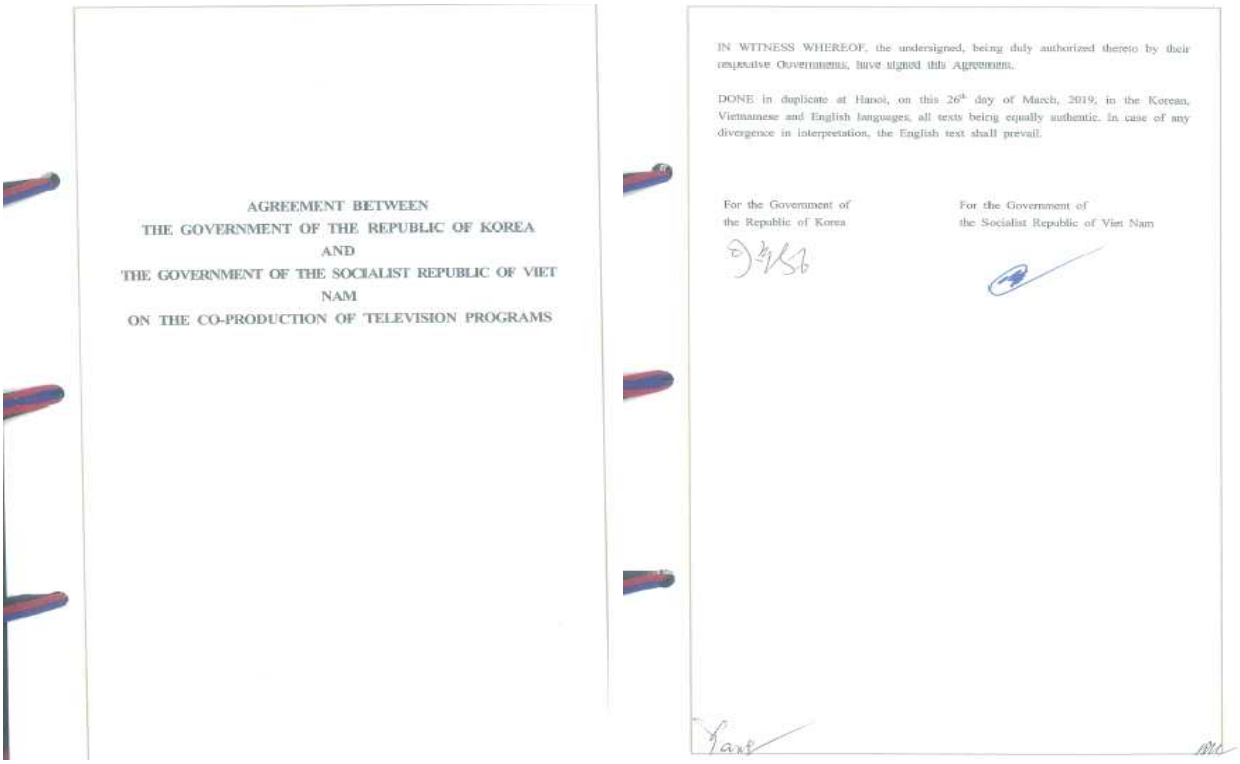
/Sgd./ Kang, Kyung-wh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효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26th day of March, 2019,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LỄ KÝ KẾT
HIỆP ĐỊNH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HXHCN VIỆT NAM VÀ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VỀ HỢP TÁC ĐỒNG SẢN XUẤT CHƯƠNG TRÌNH TRUYỀN HÌN
SIGNING CEREMONY
AGREEMENT BETWEEN THE GO NT OF 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N OF TELEVISION PROGRAM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LỄ KÝ KẾT
HIỆP ĐỊNH GIỮA CHÍNH PHỦ NƯỚC CHXHCN VIỆT NAM VÀ

2. 베트남 국영방송 VTV 방문

□ 일 시 : ’19.3.26(화) 13:50~14:50

□ 장 소 : 베트남 VTV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o (한국측)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등 7인
EBS 김명중 사장 등 5인
KISDI 김대희 원장 등 3인

o (베트남측) 쩐 빙 밍(Tran Binh Minh) VTV 사장
응우옌 티 킴 호아(Nguyen Thi Kim Hoa) VTV7 사장 등

□ 주요 내용

인사말

o (VTV) VTV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방송사로, 총 9개의 지상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베트남 국영방송 VTV 연혁 >

o 1970년, ITS(International Television System)라는 채널명으로 개국(하노이)
o 1976년, CTV(Central Television)으로 채널명 변경
o 1987년, VTV(Vietnam Television)으로 채널명 변경
o 1988년, 호치민을 시작으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
o 1990년, VTV2 개국(19년 현재 9개 채널 운영 중)
o 2015년, 국영 라디오방송 VOV(Voice of Vietnam)와 합병(정통부 승인)

< VTV 각 지상파 채널 별 특성 >

채널	특성
VTV1	뉴스채널
VTV2	과학채널
VTV3	엔터테인먼트채널
VTV4	외국어채널(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VTV5	소수민족(54개)채널
VTV6	청소년, 스포츠 채널
VTV7	교육채널
VTV8	베트남 중·북부 지역채널
VTV9	베트남 남부 지역채널

- VTV는 국영방송사지만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광고수익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따라서 VTV는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방통위원장님과 EBS 사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VTV와의 공동제작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함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 대표단을 환대해주시고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베트남 VTV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림

-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 정상회담의 주관 방송사로서, 역사적 현장을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시시각각 생생하게 전송해 주신 노고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함

o 오늘 오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방송콘텐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국내물 인정 등의 혜택을 받아, 양국 간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한국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VTV에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EBS와 VTV 간의 협력모델은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좋은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함

한국-VTV 협력 현황

o **(VTV)** VTV는 과거 구소련, 프랑스 등과 주로 협력하였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과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KBS, 아리랑TV, MBC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14년에는 CJ ENM과 드라마 '오늘도 청춘'을 공동제작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음

< VTV-한국 방송사간 주요 공동제작 사례 >

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	장르	베트남 방송사
EBS	내 동생은 0살('15년~ '16년), 미래인교육('17년), 학교가는 길('18년)	다큐 멘터리	VTV7
CJENM	오늘도 청춘('14년~ '15년)	드라마	VTV, Channel M
	러브 앳 퍼스트 송	예능	VTV3

- 이처럼 VTV와 EBS가 공동제작한 방송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에서 베트남 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 한국에서도 베트남 채널이 방송되길 희망함

o **(방송통신위원회)** 오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는 공동제작협정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 및 방송사들이 참여하여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 운영에 합의하였음

- 또한 올해 6월 방통위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베트남 특별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 VTV 사장님을 비롯한 베트남 방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람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에서의 베트남 채널 방송 관련하여 방통위가 방송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채널 운영을 지정할 수는 없음

- 다만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하겠음

o **(EBS)** EBS를 롤모델로 지난 2016년에 개국한 VTV7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ABU 등 수준높은 해외 시상식에서 수상하였음

- 또한 EBS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EBS MATH'의 포맷이 베트남판으로 제작되었고, '내동생은 0살', '미래인 교육', '학교가는 길' 등을 공동제작하였음

EBS-VTV 공동제작 MoU 체결식

o **(EBS)** 한-베 공동제작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즐거운 나의 집(Our Sweet Home)'를 VTV7과 공동제작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거형태와 사람들의 삶을 다루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되는 것으로, 양국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 확신함

o **(VTV)** EBS와의 '즐거운 나의 집' 공동제작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거공간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베트남/한국 시청자뿐만 아니라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베트남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함

< EBS-VTV 공동제작 프로그램 개요 >

▫ 프로그램명	: <즐거운 나의 집(Our Sweet Home, 가제)>
▫ 길이/편수	: 70분, 1편
▫ 제작 기간	: 2019~2020 (약 1년)
▫ 주요 내용	: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와 삶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붙임 1 >

EBS-VTV 간 MoU 체결문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BETWEEN EBS AND VTV

The purpos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is to identify a framework fo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EBS(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nd VTV(Vietnam Television)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ereafter togeth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o co-produce programmes of common interest and to exchange various information and resources relating to the advancement of each party's broadcasting.

Article 1 (Co-production)

Both parties will participate in the planning and production of a Documentary entitled "Our Sweet Homes" (70'x1eps, working title). The duration and number of episode can be adjusted through discussion. If necessary, the two parties may sign a separate agreement that is affiliated to the MOU.

Article 2 (Role Allocation)

The two parties will discuss any expenses during the co-production and the details will be discussed in a separate agreement. Role allocation including directing, script, filming and computer graphic will be agreed between the two parties.

Article 3 (Production Period)

The goal of the co-production is to film it from 2019 to 2020 and air it in 2020, but this can be adjust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Article 4 (Copyright & Profit Distribution)

Both parties share the copyright of the joint produced program and will make an agreement on the profit distribution and business rights through a separate agreement.

Article 5 (Filming support)

The Parties will cooperate and agree to offer advantages in case of counterpart's shooting in each other's country.

Article 6 (Settlement of Disputes)

All disputes and disagreements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MOU arising between the Parties or in relation to this MOU shall be settled according to current regulations of Republic of Korea and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rticle 7 (Term of MOU)

The validity of this MOU shall have a term of three years and shall take effect until the formal agreement for co-production is signed. This MOU shall take effect upon the signature of both parties and if a formal agreement is not signed till this the expiry date of this MOU, the validity of this MOU shall be automatically expired.

Article 8 (Language of MOU)

This agreement is written in English.

This agreement is signed on March 26th, 2019 in duplicates and each party keeps one of the signed copies of this MOU.

< 붙임 2 >

방통위원장-VTV 사장 면담 및 EBS-VTV 간 MoU 체결

VTV
EBS
LỄ KÝ KẾT
BIÊN BẢN GHI NHỚ HỢP TÁC SẢN XUẤT CHƯƠNG TRÌNH
GIỮA VTV7 VÀ ĐÀI TRUYỀN HÌNH EBS
SIGNING CEREMON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Co-production
Between
AND EBS

3. 베트남 총리 면담

□ 일 시 : ’19.3.26(화) 15:45~16:15

□ 장 소 : 베트남 총리 집무실 1층 회의실

□ 참석자

o (한국측)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등 7인
EBS 김명중 사장 등 5인
KISDI 김대희 원장 등 3인 등

o (베트남측) 응우옌 쑤언 푹(Tran Binh Minh) 베트남 총리
호앙 빙 바오(Hoang Vinh Bao) 정보통신부 차관 등

□ 주요 내용

인사말

o **(베트남 총리)** 베트남을 방문해 주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함

- 작년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2020년까지 천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 규모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양국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삼성과 같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여, 양국의 경제적·문화적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 한국의 對 베트남 교역 현황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한→베)	22,352	22,771	32,630	47,749	48,629
수입(베→한)	7,990	9,805	12,495	16,176	19,632
총 교역 규모	30,342	32,576	45,125	63,925	68,260

o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을 돌보시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대표단을 환영해 주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리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림

-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총리님께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림

-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양국의 관계는 '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0년 동안 크게 발전하였음

- 한국과의 교역, 투자, 개발, 인적 교류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 중 명실상부하게 1위 국가로 자리잡았음

- 또한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 축구 경기에 21%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호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양국 관계 증진에 총리님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림

방송 공동제작 활성화 관련

o **(베트남 총리)** 드라마 등 공동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방영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방송 공동제작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위원장님의 이번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계기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인력·기술 등의 교류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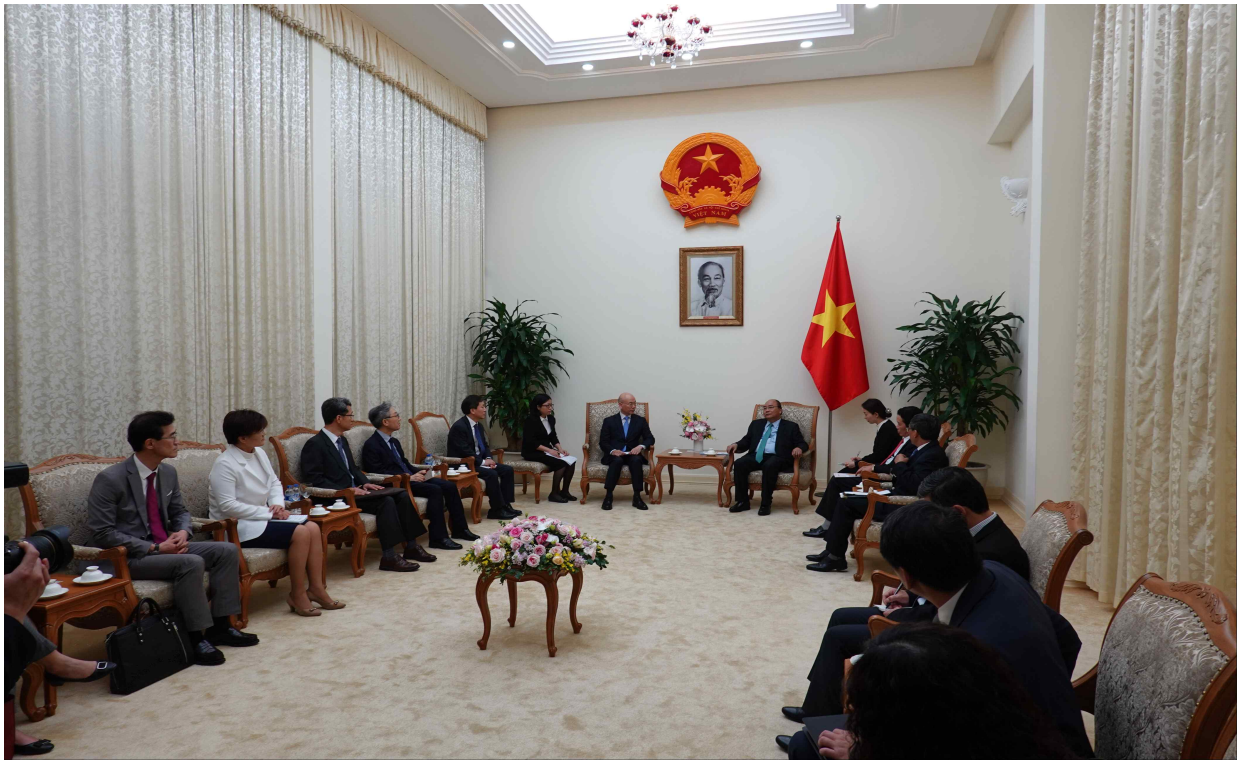
- 이를 위해 베트남 정보통신부와의 실무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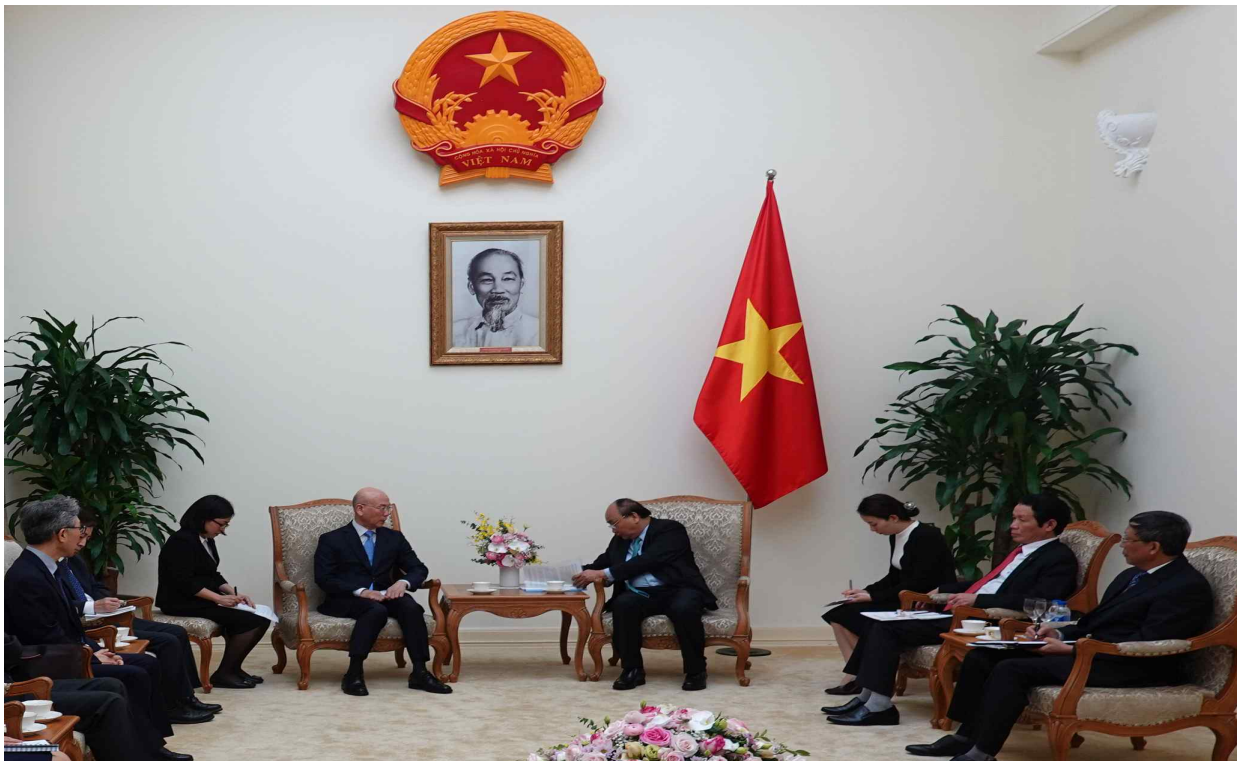
o **(방송통신위원회)**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는 데에 방송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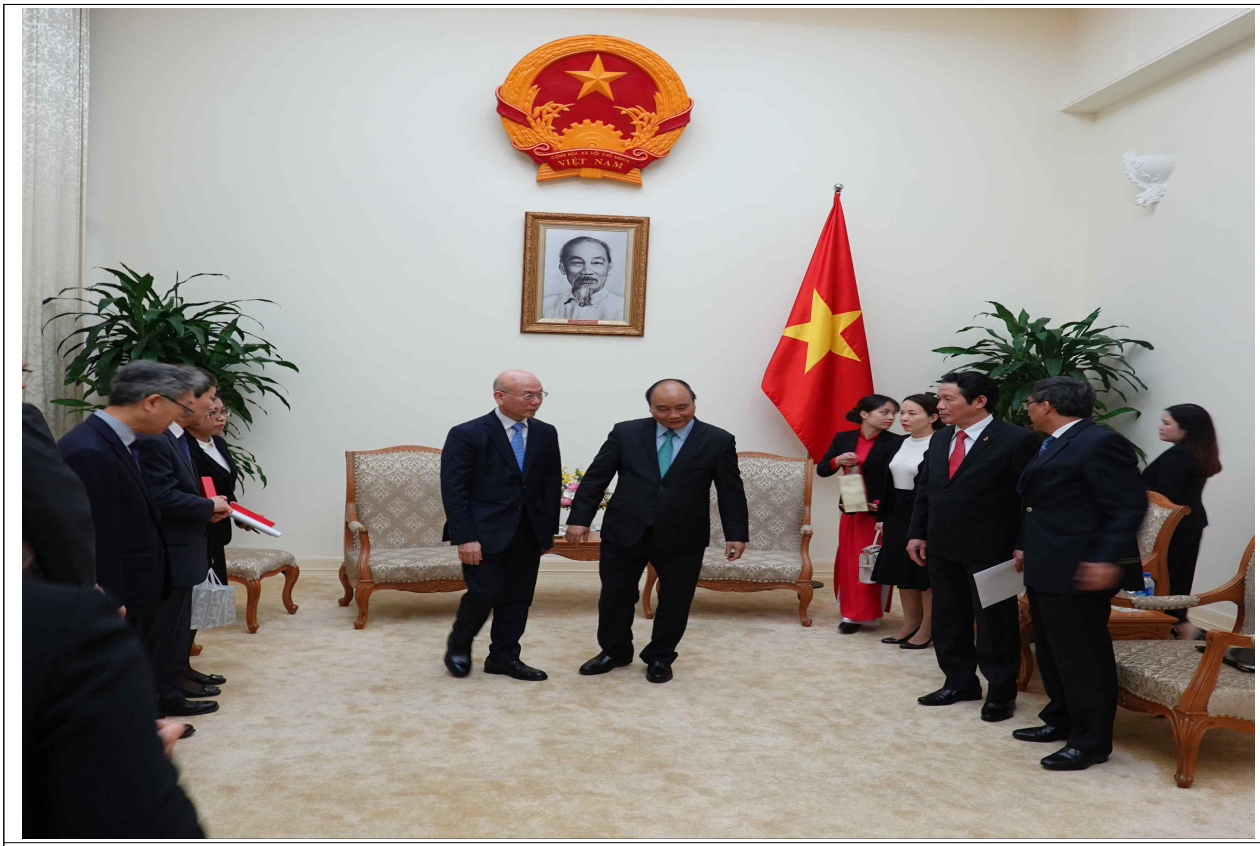
- 오늘 방통위와 정통부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였고 EBS와 VTV가 공동제작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공동제작 방송 콘텐츠가 이제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함
- 방통위에서도 양국 간 방송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총리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람

< 붙임 >

방통위원장-베트남 총리 면담






VIỆT NAM

4. 베트남 현지진출 사업자 간담회

□ 일 시 : ’19.3.26(화) 18:30~20:0

□ 장 소 : 롯데호텔 하노이 6층 컨퍼런스룸

□ 참석자

o (대표단)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등 7인
EBS 김명중 사장 등 5인
KISDI 김대희 원장 등 3인
주베트남대사관 신상열 과기정통관
방통위 기자단 8인 등

o (현지 사업자) 방송·통신 분야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 대표 등

구 분	소속 및 직위	이름	비 고
방송	라임 엔터테인먼트 대표	윤상섭	· 베트남 현지 법인 제작사 · 오마이베이비, 런닝맨 등 공동제작
홈쇼핑	SCJ(CJENM 현지 홈쇼핑) 팀장	김진만	· ‘11년 CJ가 Saigon Tourist Cable과 합자하여 설립
OTT	네이버 베트남 법인장	박동진	· 베트남 현지 V Live 서비스
현지 기관	KOTRA 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장	김기준	· 베트남 현지 진출 관련 지원
	하노이IT지원센터 센터장	박윤정	· NIPA 소속, IoT 등 8개 기업 입주

□ 주요 내용

인사말

o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현지 대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 오늘 방통위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였고, 국영방송 VTV와 EBS가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데 지원군이 되어, 베트남 총리와는 양국 우호증진과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요청하는 등 의미있는 일정을 보냈음

- 이 자리는 한국의 베트남 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마련한 자리로서, 오늘 주실 말씀들을 소중히 듣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현지 진출 사업자 소개 및 사업 현황 공유

o **(라임엔터테인먼트)** '런닝맨'을 베트남 방송사 HTV와 공동제작 중이며 4월 6일 첫 방송 예정

- 베트남 시청자들은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기보다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화 제작을 실험적으로 선도해 왔음. 베트남에서 국내콘텐츠 제작이 보통 편당 4만 달러인데 런닝맨의 경우는 편당 15만 달러에 제작함

- 라임엔터테인먼트는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은 크지 않음. 현재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구조를 고민 중임. 런닝맨이 다른 콘텐츠로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함

o **(SCJ 홈쇼핑)** 베트남에서 2011년 7월, VTV자회사와 5:5 투자한 합작법인으로 론칭하여, 8년째 베트남에서 홈쇼핑 채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중

- 베트남에서는 홈쇼핑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임

- 한국상품을 베트남에 판매하기만 하면 베트남에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상품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CJ ENM을 통해 베트남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음

- 상품 주문을 받으면, 7곳 베트남 배송사를 통하여 배송하나, 베트남은 배송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치민·하노이의 경우에도 배송하는데 약 2~5일 정도 소요됨

- 다만, 홈쇼핑 전환율(총 주문에서 취소와 반품을 제외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약 70%인데, 베트남 시청자들은 상품에 만족하고 주문취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약 90%로 나타남

o **(네이버)** 현재 네이버는 베트남에서 메신저 사업은 중단하고, 3년 전부터 콘텐츠 사업인 V라이브 서비스를 개시하여, 한류 아이돌들의 라이브 콘텐츠를 휴대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

- 베트남은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적어서 한류 욕구(needs)가 크고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현지사업자와 협업하여 베트남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KOTRA)** KOTRA는 동남아에 10개 사무소 있는데, 최근 본부가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정도로, 베트남을 아세안 국가 중 핵심 파트너로 판단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은 높은 교육열 등 유사점이 많고, 하루 취항하는 항공편이 80편일 정도로, 문화적·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임

o **(IT지원센터)** 하노이IT지원센터는 작년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설립되어 약 1년 정도 운영되고 있음

- 우리 중소기업이 홀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베트남에서의 수월한 IT 사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지속할 예정

현지 진출 전략 및 애로사항 관련

o **(라임엔터테인먼트)** VTV와 HTV가 베트남 방송사의 양대 산맥이지만,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한국드라마는 프라임시간대에 방영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 한류붐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완성품(프로그램) 수출보다 베트남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 포맷을 가져와서 현지화한다면, 베트남에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사업자는 현지사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프라임타임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지속적·안정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통위에서 베트남 정통부, VTV 등에게 이런 점을 건의해주길 요청드림

o **(SCJ 홈쇼핑)** 중국과 비교해 볼 때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업자들이 대접받는 분위기이나, 베트남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어서 중국에서와 같은 피해를 받을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하지만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는 점 등,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은 중국처럼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함

- 베트남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해서 기반을 다져주길 바라고 있음

o **(네이버)** 한국에서 아무리 규모가 커도 구글/페북 등 글로벌 사업자 및 현지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음

- 또한 시장 트렌드에 비하여 각국 정부 규제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라이센스 발급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듦

-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찾기 힘들어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o **(IT지원센터)**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IT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 20년 전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을 당시와 유사하며, 영세한 기업일수록 어려움이 큼

- 베트남은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비슷한 상품이라면 한국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계약 과정이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여 계약 성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어려움

마무리 말씀

o **(방송통신위원회)**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덕분에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다른 부처 소관 부분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할 시점이라 생각하며 방송분야는 공동제작 등을 통해 그것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함
- 오늘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로, 방통위와 정통부 뿐만 아니라 방송사·제작사 등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음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므로, 오늘 말씀하신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타지에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람

< 붙임 >

베트남 현지진출 사업자 간담회

5.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위원장 양자면담

□ 일 시 : ’19.3.28(목) 10:00~12:00

□ 장 소 :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6층 회의실

□ 참석자

o (한국측)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등 7인
KISDI 김대희 원장 등 3인
주인니한국문화원 천영평 원장 등

o (인니측) 율리안드레 다르위스(Yuliandre Darwis) 방송위원회 위원장, 마용 수르요 락소노(Mayong Suryo Laksono) 위원 등 10인

□ 주요 내용

인사말

o (KPI) 최근 인도네시아 시청자들로부터 한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에서도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인도네시아 방송사들도 한국과 협력하여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람

o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와 KPI는 ‘17년 MoU*를 체결한 바 있고, ’16년과 ‘18년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시는 등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방송·영화 등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식·화장품 등 한국의 문화가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 오늘 면담을 계기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 재개 등 구체적인 협력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함

< 방통위-KPI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주요 내용>

제1항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체약 당사자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의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항 협력활동

1. 양 체약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협력활동을 추진하되 아래 열거한 활동에 한정하지 않는다.

가. 공동연구반 구성·운영 등 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 체결
나. 방송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방송사업자 간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 촉진
다. 방송콘텐츠 관련 포럼, 세미나, 전시회 등의 행사에 관련 기관 및 사업자 참가 촉진
라.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정책 등 관련 정보 및 인력 교류
마. 양 체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타 협력활동

한-인니 방송 콘텐츠 교류 관련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의 방송사들도 인도네시아의 방송규제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통위와 KPI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양국의 방송관련 이슈에 대해 서로 잘 알 수 있을 것임

- 일례로, 최근 방통위는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매체 이용 행태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51.8%가 한국과의 공동제작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 적 있으며, 87%는 공동제작이 인도네시아 방송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답함

- 이러한 연구 자료들이 공유된다면 양 국가의 방송에 관한 자료가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o **(KPI)**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의 공동제작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은 방송 장르 중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공동제작한 웹드라마 '러브 디스턴스'가 인도네시아 OTT를 통해 방영된 바 있음

- 드라마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임

< 한-인도네시아 공동제작 방송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 용
드라마 <러브 디스턴스(2018)> 	- 한국-인도네시아 첫 합작 웹드라마로, '18년 4월 국내 카카오TV 및 인도네시아 유튜브 KOSONG TV, Path Indonesia에서 방영

o **(방송통신위원회)** 양국 방송 콘텐츠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 사업자 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교류·협력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일례로 케이블TV 등 한국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인도네시아 채널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인기 OTT플랫폼에 한국 채널들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음

- 또한 현재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 OTT플랫폼에 인니 채널이 들어올 수도 있음

- 이처럼 양국 방송프로그램 교류의 활성화로 산업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함

< 한국 방송콘텐츠 對인도네시아 수출 금액 추이(2011~2017) >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상파	1,231.4	843	865	890.7	1,128.9	865.6	895
PP	14.8	36	411	425	256	261.7	311.4
합계	1,246.2	879	1,276	1,315.7	1,384.9	1,127.3	1,206.4

한-인니 방송 공동제작협정 관련 논의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면, 공동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비 지원, 출입국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한국과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되면, 한국 제작진들이 인니 제작진에게 한국의 선진 제작 기술 등을 전수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양국 간 국장급 협의체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여 공동제작협정 체결로 이어지기를 희망함

o **(KPI)**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논의가 재개되어, 양국의 방송 콘텐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방송관련 기관이 KPI와 통신정보기술부(Ko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이하 KOMINFO)로 분리되어 있어 KOMINFO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함

o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KPI, KOMINFO 등 한-인니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3자 간 국장급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KPI가 인도네시아 방송의 편성, 내용 등 공동제작협정의 혜택과 관련한 사안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KPI가 주요 당사자로서 반드시 함께 협의체에 참여해야 함

o **(KPI)** 말씀하신 사안을 KOMINFO에 전달하여, 최대한 빨리 공동제작협정에 관한 국장급 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관련

o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관련 글로벌 공통이슈에 대한 논의체인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임

-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 사업자, 연구원 등도 참여하여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함

o **(KPI)** 말씀하신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 그룹에 인도네시아 KPI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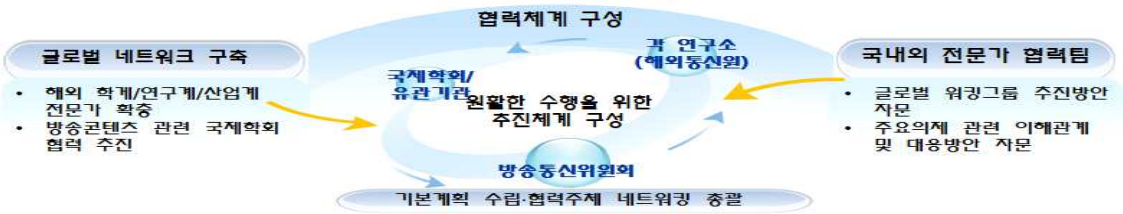
<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개요 >

o **(개념)** 방송콘텐츠 관련 글로벌 공통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체'

o **(사업내용)** 각국별 방송정책 담당부처(공무원), 방송사업자·연구기관·학계·애널리스트·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Pool을 구성하여,

- 주제별 적임자가 논의에 투입되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각국 입장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

o **(기대 성과)** 논의된 아젠다들은 국제방송기구나 연관된 국제기구 등에 의제로 발의, 방송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한국의 방송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붙임 >

방통위-인도네시아 KPI 양자면담

KOMISI PENYIARAN INDONESIA
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KPI
KCC
&
KISDI
Mr. Yuliandre Darwis, Ph.D
Mr. Hyo-Seong Lee

6. 인도네시아 MNC(Media Nusantara Citra) 그룹 방문

□ 일 시 : ’19.3.28(목) 14:00~16:00

□ 장 소 : 인도네시아 MNC 스튜디오 타워III

□ 참석자

o (한국측)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등 7인
KISDI 김대희 원장 등 3인
주인니한국문화원 천영평 원장 등

o (인니측) 릴리아나 타누수디보(Liliana Tanoesoedibjo) MNC그룹 회장,
엘라 카트리카(Ella Kartika) MNC애니메이션 사장 등 7인

□ 주요 내용

인사말

o **(MNC 그룹)** MNC 그룹을 방문해 주신 이효성 방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MNC그룹은 4개의 지상파 채널(RCTI, MNC TV, GTV, INEWS)과 22개의 유료방송 채널뿐만 아니라, 유료방송플랫폼, 영화제작사 등을 보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디어 기업임

- 방문하신 이 곳은 MNC 스튜디오로 이곳에서 미디어콘텐츠가 제작되는 곳이며, 면담 이후 제작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함

o **(방송통신위원회)** 인도네시아 최고 인기 미디어 그룹이면서 최근 한국 방송사와 많은 교류가 있는 MNC 그룹을 방문하게 되어 기쁨

- 오늘 오전 방송위원회(KPI)와의 회의에서 한-인니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국장급 협의체 재개에 합의하였음

-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한-인니 공동제작물은 양국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양국의 해외제작물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 양국 방송에서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음

- 한국에서 방송 콘텐츠 관련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인도네시아와의 방송 공동제작협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MNC 그룹과의 제작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함

한-인니 방송 콘텐츠 협력방안

o **(MNC 그룹)** BMC 및 서울드라마어워즈에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을 자주 방문한 이유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함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웹드라마는 새로운 분야이지만 한국은 이미 웹드라마가 발전 단계에 진입한 상태임

- MNC그룹에서도 웹드라마를 제작할 계획하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하여 노하우 등을 배워 웹드라마를 공동제작하고 싶음

- MNC그룹은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복면가왕' 포맷을 구입하여 각각 시즌4까지 방영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MNC그룹-한국 방송사간 주요 공동제작 사례 >

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	장르	공동제작 인니 채널
MBC	복면가왕('17～'18)	예능	GTV
CJENM	너의 목소리가 보여('16～'19)	예능	MNCTV

o **(방송통신위원회)** MNC 그룹과 한국 방송·제작사들이 협력하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특히 한국의 OTT 플랫폼에 MNC 콘텐츠가 포함되면,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방송 콘텐츠 제작 관련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의 경우 외주제작사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가 일정 부분 이상을 외주제작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

- 한국에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많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제작할 경우 방송사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사와 제작하는 방법도 있음
- MNC 그룹에서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 중에서 외주제작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o **(MNC 그룹)** 저희가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는 전부 자체제작임

- 하루 평균 11시간 방송 분량이 자체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MNC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및 PP 채널을 통해 송출됨

o **(방송통신위원회)** OTT 등 새로운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출현함에 따라 기존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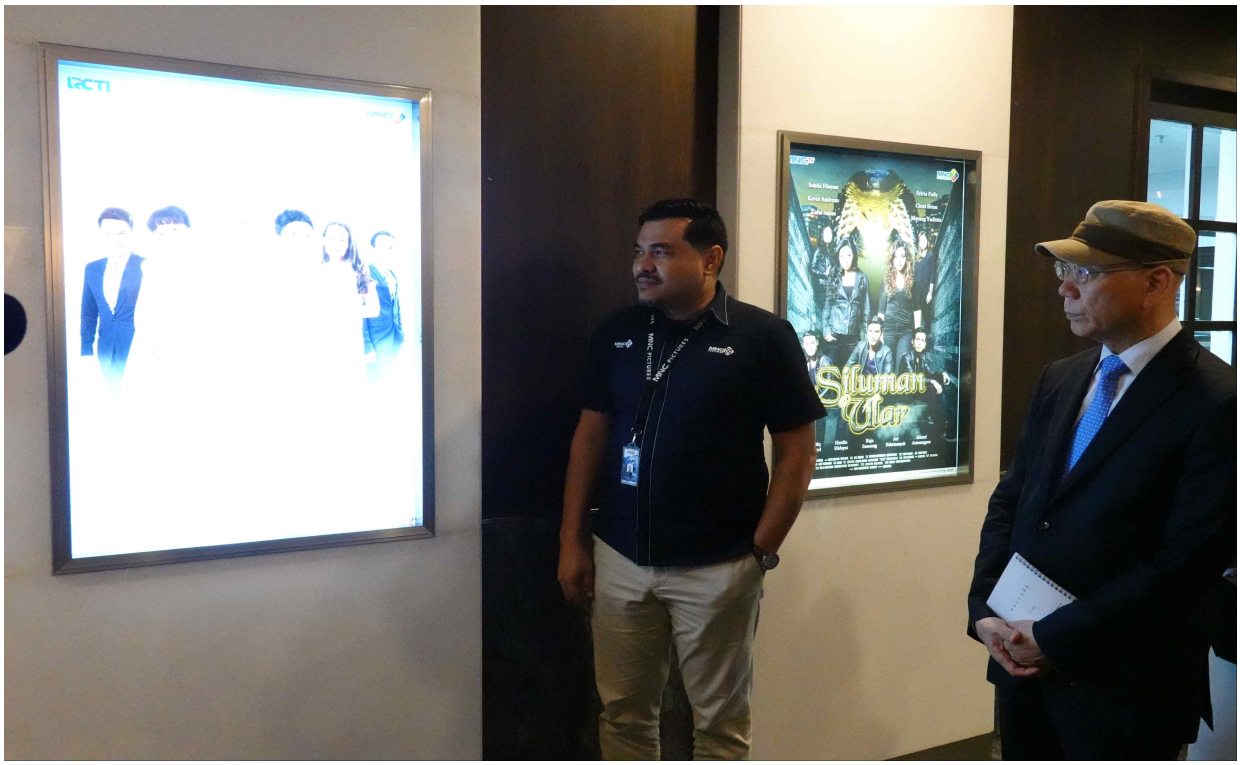
- MNC 그룹의 경우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OTT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지는 않은가?

o **(MNC 그룹)** 광고수입은 전체 MNC 미디어 수익의 65% 수준으로, 광고수익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확장할 예정

- 인도네시아 시청률 1-2위가 모두 MNC 그룹 채널이기 때문에, MNC 그룹을 통해 방송되는 경우 광고 수익에 큰 어려움이 없음
- 다만, 시청자들의 OTT 이용 확대 추세에 맞게, MNC그룹도 'MNC Now'라는 OTT앱을 만들어 플랫폼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음

< 붙임 >

인도네시아 MNC그룹 양자면담 및 제작현장 참관


RCTI
Siluman Ular

DahSyat

Ⅲ. 홍보 성과

1. 보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3월 26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9.3.26.(화)

문의 : 방송기반국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 박명진 팀 장(☎2110-1289, sangbongsu@korea.kr)
박민성 사무관(☎2110-1281, mspark1837@korea.kr)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 방송분야 신남방정책 첫 성과
- 양국 '공동위원회' 발족,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공동참여 합의, VTV-EBS 간 MoU 체결 잇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6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이하 '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논의는 지난 2016년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지속적인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완료한 바 있다.

< 방송 공동제작협정의 의미 >

o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FTA를 통해 근거조항이 마련된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o 방송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가 투자하거나 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제(例) 편성 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음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 - 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이 이어져, 한-베 공동제작 협정에 근거를 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게 됐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은 앞서 열린 MIC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협정 체결 후 실질적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두 수장은 "정부 고위급 및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 베트남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도록 '베트남 특별관'을 특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콘퍼런스와 특별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베트남 MIC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여 최근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방송분야로 더욱 확장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 방송 공동제작의 활성화와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사, OTT사업자, 홈쇼핑방송사 등 사업자들과 만나 현지 진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효성 위원장은 3월 28일(목)에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전체 인구 규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방송 분야에서의 신남방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최근 한류 드라마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 방송콘텐츠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 2018년 12월 방통위가 실시한 인도네시아 시청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8%가 한국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 응답자 87.3%가 국가 간 공동제작이 방송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함

이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 KPI) 위원장 율리안드레 다르위스(Juliandre Darwis)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17년 체결한 방송콘텐츠 MoU의 후속논의 재개를 제안하고,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와 국장급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최대 방송 그룹인 MNC그룹의 릴리아나 타누수디뵤(Liliana Tanoesoedibjo) 회장 및 이사진들과 면담하여,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NC그룹과 한국 방송사 간의 공동제작을 다양한 장르로 확대하고, 한국의 좋은 방송콘텐츠를 많이 소개해 주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의 성과를 동력삼아 동남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방송분야 신남방정책을 중국과 러시아, 중동, 미주·캐나다 등 전 세계로 지속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

2. 언론보도 현황

□ 방 송

연번	언론사	주 소
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6287
2	EBS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20067862/H?eduNewsYn=N
3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90799
4	MBN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208283
5	Channel 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40366

□ 신문 · 인터넷

연번	언론사	제 목
1	KBS	방통위, 베트남과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2	SBS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체결
3	JTBC	방통위, '프로그램 베트남 진출' 돕는다
4	연합뉴스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5	TV조선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6	MK뉴스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7	한국경제	방송통신위원회,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 체결
8	머니투데이	방통위, 베트남 정부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키로
9	KBS World Radio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10	아이뉴스	방통위,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연번	언론사	제 목
11	ZDNet Korea	방송 콘텐츠 신남방정책 시동 ... 한-베트남 맞손
12		ICT 분야도 박항서 감독 대표팀 신화 재현하자
13	브릿지경제	방통위,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14	이데일리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15	NEWSIS	방통위, 한-베트남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맞손
16	뉴스웍스	방통위, 베트남과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17	EBN	방통위,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18	아시아경제	방통위-베트남 정보통신부 '맞손'
19	Chosunbiz	방통위,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20	IT조선	한-베-인 공동 제작 콘텐츠, 편성 규제 NO
21	전자신문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22	국회뉴스	한-베트남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23	정책브리핑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체결

□ 베트남 현지 보도

연번	언론사	제 목
1	VTV	Vietnam-Rok to co-produce TV programes
2		Vietnam, RoK to strenthen cooperation in broadcasting _ VTV
3		Mở rộng quảng bá hình ảnh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4		Đài THVN và EBS đã tiến hành ký Biên bản ghi nhớ hợp tác sản xuất series phim tài liệu

□ 방송 보도별 화면

< KBS >

< EBS >

< JTBC >

< MB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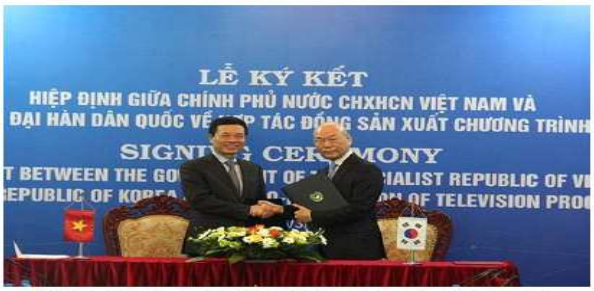
< CHANNEL A >

□ 베트남 ·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

< VTV (영어) >

Vietnam, RoK to co-produce TV programmes

by VNA | 26 March 2019 Last updated at 21:00 PM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guyen Manh Hung (L) and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Lee Hyo-seong at the event (Source: VNA).

Like Share Be the first of your friends to like this.

VTV.vn -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guyen Manh Hung and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Lee Hyo-seong signed a government-level cooperation agreement in Hanoi on March 26 on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mes.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leaders of major news outlets such as the Vietnam News Agency and Vietnam Television.

Under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Vietnam's television producers can register the co-production of TV shows to each other's relevant agencies for approval within 50 days. Where cases are denied, the reasons given must be made clear.

The broadcasting of co-produced programmes must be in line with the regulations of each side.

Each producer must contribute at least 10 percent of fundings to the programme, which will be also carried out by Vietnamese and Korean staff.

During a working session before the signing ceremony, Minister Hung and Chairman Lee shared the view that the coverage of each other's countries, people, and cultures on television programmes will create a driving force for long-term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Minister Hung suggested establishing a joint working group to realise the agreement, as well as holding seminars, training courses, delegation and reporter exchanges to boost cooperation in response to future trends, especially concerning the growing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field.

Lee, for his part, agreed with the host's proposal. He informed Hung that the commission will hold a seminar on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mes in June 2019, expressing his hope that Vietnam's television stations would join the event to share experience.

Vietnam, RoK to strenthen cooperation in broadcasting

by VTV4 | 27 March 2019 Last updated at 07:15 AM

Like Share Be the first of your friends to like this.

VTV.vn - PM Phuc had a meeting with Lee Hyo-Seong,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n Hanoi on Tuesday.

The Prime Minister proposed that the media outlets of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give adequate space to promoting each other's nations.

The Prime Minister also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signing of a cooperation agreement on TV program production between the KCC and Vietnam'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e gave his word that the government would work hard to develop bilateral ties, especiall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in broadcasting. Lee Hyo-seong noted that the number of Korean tourists visiting Vietnam has surged over the past few years.

He also conveyed his delight at the development of Vietnamese football under the coaching of RoK national Park Hang-Seo.

< VTV (베트남어) >

Đài THVN và EBS đã tiến hành ký Biên bản ghi nhớ hợp tác sản xuất series phim tài liệu

PV - Thứ ba, ngày 26/03/2019 17:39 GMT+7

Thích Chia sẻ

VTV.vn - Dự án hợp tác giữa VTV7 và EBS là series phim tài liệu kể những câu chuyện đặc biệt phản ánh giá trị văn hóa, lối sống đặc trưng ở các vùng miền Việt Nam và Hàn Quốc.

VTV7: Nuôi dưỡng và tìm tòi sự độc đáo
Đón xem nhiều bộ phim hoạt hình hấp dẫn EBS Kids trên kênh VTV7
VTV7 hợp tác với Hàn Quốc xây dựng khung chương trình hoạt hình E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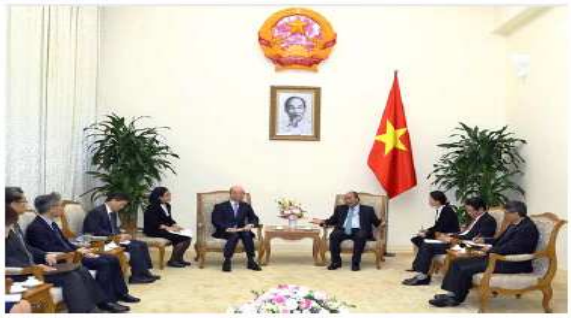
Chiều nay (26/3),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đã có buổi làm việc với ông Hyo-seong Lee - Chủ tịch Uy ban Truyền thông Hàn Quốc, ông Myung Joong Kim – Giám đốc Đài Truyền hình EBS cùng đoàn công tác.

Tại buổi làm việc, ông Trần Bình Minh – Tổng Giám đốc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đã giới thiệu với ông Hyo-seong Lee về cơ cấu tổ chức, nhiệm vụ của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đồng thời đánh giá cao hiệu quả hợp tác giữa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với các đài truyền hình Hàn Quốc trong việc sản xuất phim, chương trình truyền hình.

Mở rộng quảng bá hình ảnh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Trung Kiên (Ban Thời sự) - Thứ ba, ngày 26/03/2019 20:07 GMT+7

Thích Chia sẻ



Thủ tướng Nguyễn Xuân Phúc tiếp Chủ tịch Uỷ ban Truyền thông Hàn Quốc. Ảnh: TTXVN.

VTV.vn - Ủy ban Truyền thông Hàn Quốc sẽ nỗ lực để sớm thiết lập một kênh truyền hình về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Công bố chương trình hợp tác Hàn Quốc - VTV9
Triển khai các thỏa thuận hợp tác Quốc hội Việt Nam - Hàn Quốc
Phát triển sản phẩm du lịch theo chủ đề - Nhìn từ kinh nghiệm của Hàn Quốc

Đây là khẳng định của Chủ tịch Uy ban Truyền thông Hàn Quốc Lee Hyo-seong tại buổi hội kiến Thủ tướng Nguyễn Xuân Phúc vào chiều 26/3.

Tán thành với đề xuất này, Thủ tướng Nguyễn Xuân Phúc đề nghị hai bên hợp tác sản xuất các chương trình giới thiệu về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qua làn sóng của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và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 Bên cạnh đó, Hàn Quốc hỗ trợ để các chương trình phát thanh, truyền hình của Việt Nam, đặc biệt là các chương trình về quảng bá văn hóa, đất nước, con người Việt Nam, phát sóng trên hệ thống phát thanh, truyền hình của Hàn Quốc.

Chủ tịch Uy ban Truyền thông Hàn Quốc Lee Hyo-seong khẳng định người dân Hàn Quốc có ấn tượng tốt đẹp với Việt Nam. Năm 2018, lượng khách du lịch Hàn Quốc đến Việt Nam đã vượt 3 triệu người, tăng 50% so với năm 2017. Ông cho rằng, với sự yêu mến dành cho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ngày càng nhiều du khách Hàn Quốc sẽ đến Việt Nam và ngược lại.

< KPI (인니어) >

Datangi KPI, Regulator Penyiaran Korea Selatan Harapkan Kerja Sama Dua Negara Segera Direalisasi

Jakarta - Komisi Penyiaran Indonesia (KPI) menerima kehadiran regulator penyiaran Korea Selatan beserta beberapa stake holder negara ginseng tersebut di kantor KPI Pusat, (28/3). Delegasi Korea Selatan ini terdiri atas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KCC),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dan beberapa stasiun televisi yang bersiaran di sana.

Ketua KPI Pusat Yuliandre Darwis menerima delegasi Korea Selatan yang dipimpin langsung oleh Ketua KCC, Hyo-seong Lee. Hadir juga untuk mendampingi adalah Komisioner bidang pengawasan isi siaran, Mayong Suryo Laksono, Dewi Setyarini, dan Nuning Rodiyah.

Dalam pertemuan tersebut, KCC menyampaikan inisiatif untuk menindaklanjuti kerja sama antara KPI dan KCC yang selama ini sudah terjalin, dalam bentuk yang lebih konkret. Ketua KCC mengatakan, pihaknya sudah mempelajari tentang budaya dan masyarakat Indonesia, dan menilai kerja sama yang lebih teknis antara dua lembaga ini sangat mungkin direalisasikan.

Ketua KPI sendiri menjelaskan tentang batas kewenangan yang dimiliki oleh KPI, serta keberadaan lembaga lain yang juga turut mengatur penyiaran. "KPI berkewenangan penuh terhadap isi konten penyiaran, tapi untuk masalah infrastruktur penyiaran yang bertanggung jawab menanganinya adalah 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ujar Yuliandre. Hal ini disampaikan mengingat ada perbedaan kewenangan yang signifikan antara KPI dan KCC dalam menangani urusan penyiaran.

Konsolidasi KPI dan KCC sendiri sebenarnya sudah pernah digagas pada tahun 2017 untuk mewujudkan kerja sama co-production antar-dua negara. Namun dengan adanya pergantian komisioner dari KCC, diharapkan rencana kerja sama ini dapat teralisasi.

Hyo-seong Lee menekankan bahwa kerja sama ini adalah kemitraan yang strategis. Apalagi masyarakat Indonesia sendiri sudah sangat akrab dengan konten siaran dari Korea, dan demikian pula sebaliknya. Dirinya mengakui bahwa Indonesia juga sangat popular di Korea, terutama di bidang konten siaran, kosmetik dan juga makanan.

□ 언론 기사별 화면

< KBS >

KBS NEWS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입력 2019.03.26 (16:30) | 수정 2019.03.26 (16:36)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 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FTA를 통해 근거조항이 마련된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방통위는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 – 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이 이어져 한-베 공동제작협정에 근거를 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과 베트남 정보통신부 응우옌 마잉 홍 장관은 "정부 고위급 및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28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017년 체결한 방송콘텐츠 MOU의 후속 논의 재개를 제안하고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와 국장급 협의체 가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SBS >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SBS유병수 기자

입력 : 2019.03.26 16:47 | 수정 : 2019.03.26 16:48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마잉 홍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이 공동제작 활성화와 교류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고 방송될 수 있게 됐고, 우리 방송사와 제작사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 두 나라는 정부 고위급과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와 사업자,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SBS유병수 기자

입력 : 2019.03.26 16:47 | 수정 : 2019.03.26 1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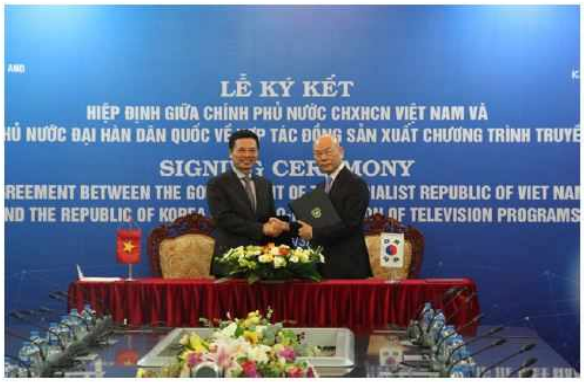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JTBC >

방통위 '프로그램 베트남 진출' 돕는다

[JTBC] 입력 2019-03-27 오후 2:01:48 수정

베트남 정부와 '공동위원회' 구성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현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 공동위원회에는 방통위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제작사 등도 참여해 실질적인 TV콘텐트 교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이하 MIC)와 공동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FTA를 통해 근거조항이 마련된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공식 협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2019-03-26 16:46

댓글

'공동위원회' 발족…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공동참여 합의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 논의는 2016년 초 방통위 제안으로 시작돼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투자하거나 한국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편성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방송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방송사·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동 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베트남 VTV는 가칭 '즐거운 나의 집'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방통위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정부 고위급·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제보 불진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보·사업자·연구자 등

< TV조선 >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 MK뉴스 >

MK뉴스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입력 : 2019.03.26 16:46:51

'공동위원회' 발족...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공동참여 합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 논의는 2016년 초 방통위 제안으로 시작돼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투자하거나 한국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편성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방송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방송사·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동 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베트남 VTV는 가칭 '즐거운 나의 집'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방통위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정부 고위급·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8일에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방송 분야에서의 신남방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호감도가 높고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어 한국 방송콘텐츠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율리안드레 다르위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17년 체결한 방송콘텐츠 양해각서 후속 논의 재개를 제안하고, 공동 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와 국장급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

< 한국경제 >

한국경제

방송통신위원회,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 체결

입력 2019-03-26 18:13 수정 2019-03-26 18:13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 사진=텐아시아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투자하거나 국내 인력이 투입된 공동 제작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편성 제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협정 체결 직후 EBS와 베트남 VTV는 '즐거운 나의 집'(가칭)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정부 고위급과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방송 콘텐츠의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 사업자, 연구자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은 2016년 초 방통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세부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

< 머니투데이 >

방통위, 베트남 정부와 TV 프로그램 공동 제작키로

머니투데이 | 김주현 기자 2019.03.26 16:3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616091689321&type=1

▎양국 공동위원회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논의는 2016년 초 방통위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다섯차례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지속적인 실무급 세부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

방송 공동제작 협정은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와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간 체결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가 투자하거나 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협정은 우리 방송사와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촉진시키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 KBS World RADIO >

경제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Write: 2019-03-26 16:50:07 / Update: 2019-03-26 16:59:10

방통위는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 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FTA를 통해 근거조항이 마련된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방통위는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 - 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이 이어져 한-베 공동제작협정에 근거를 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과 베트남 정보통신부 응우옌 마잉 훙 장관은 "정부 고위급 및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28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017년 체결한 방송콘텐츠 MOU의 후속 논의 재개를 제안하고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와 국장급 협의체 가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아이뉴스 >

방통위, 한-베트남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방송 신남방정책 행보

2019년 03월 26일 (화) 오후 04시 56분 22초

도민신기자 domingo@inews24.com

[아이뉴스24 도민신 기자] 한류 방송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찾아 글로벌 협력을 이뤄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논의는 지난 2016년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지속적인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완료한 바 있다.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근거조항이 마련된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이 투자하거나 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편성 규제를 받지 않고 방송될 수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왼쪽은 응우옌 마잉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 오른쪽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 - 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어져, 한-베 공동제작협정에 근거를 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 위원장은 앞서 열린 응우옌 마잉 훙 MIC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협정 체결 후 실질적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 ZDNet Korea >

방송 콘텐츠 신남방정책 시동…韓·베트남 맞손

한국-베트남 국가 간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박수형 기자 | 입력: | 방송/통신

<하노이(베트남)=박수형 기자>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을 통한 방송통신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에서 본격화 됐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한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베트남 국영방송 VTV의 공동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에 방송 한류의 확산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방통위는 지난 2016년 관련된 내용을 제안한 이후 다섯 차례의 고위 실무급 협의체 논의와 세부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 문안 합의까지 이뤘다.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최 이날 방통위는 최고당국의 권리를 위임받고,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총리실의 권한으로 양국 간 협의를 맺었다.

응우옌 마잉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 방송통신 신남방 정책 1번지는 베트남

협의는 당초 양 국가의 주무 행정기관과 방송사의 약속 수준을 넘어 각국에서 최고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양 국가가 함께 만든 방송 콘텐츠 시장이 더욱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CT 분야도 박항서 감독 대표팀 신화 재현하자"

한국 방통위-베트남 정통부, ICT 협력 확대 추진

박수형 기자 | 입력: | 방송/통신

<하노이(베트남)=박수형 기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의 조합은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응우옌 마잉 훙 장관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같은 성과에도 당초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협력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논의됐다.

응우옌 마잉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응우옌 마잉 훙 장관은 이효성 위원장의 제안에 "박항서 감독을 언급하는데 양국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위원장과 제가 감독이다"면서 "협정 체결 후에는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외에도) 양 기관이 협력할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역사와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방송통신 분야 두 수장이 ICT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 브릿지경제 >

삼성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방통위,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정길훈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9-03-26 16:51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이하 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응우옌 마잉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협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이하 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6년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지속적인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EBS와 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즐거운 나의 집(가칭)' 제작에 대한 MOU(양해각서) 체결도 진행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응우옌 마잉 훙 MIC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협정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데일리 >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입력시간 | 2019-03-26 04: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Newsis >

NEWSIS 산업 > 산업일반

방통위, 한-베트남 'TV 프로그램 공동 제작' 맞손

방송분야 신남방정책 첫 성과..양국 공동위원회 발족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공동참여 합의

이국현 기자 | lgh@newsis.com

등록 2019-03-26 17:13:46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 뉴스웍스 >

뉴스웍스

HOME > 산업 > IT

방통위, 베트남과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3.26 16:49

응우옌 마잉 훙(왼쪽) MIC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26일 체결했다.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논의는 지난 2016년 초 방통위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지속적인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방통위는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 - VTV 공동제작 프로그램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이 이어져 한-베 공동제작협정에 근거를 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록됐다.

< EBN >

EBN 프린트

방통위,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방송분야 신남방정책 첫 성과…양국 '공동위원회' 발족
이효성 위원장, 베트남 이어 28일 인도네시아 방문

황준익 기자 (pluslk@ebn.co.kr) | 2019-03-26 16:34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도 이뤄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양서 열린 MIC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장관과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두 수장은 소정부 고위급 및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이 참여,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 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방통위·베트남 정보통신부 '맞손'

기사입력 2019.03.26 16:38 최종수정 2019.03.26 16:38

방송분야 신남방 정책의 첫 성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손잡고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맺었다. 방송분야 신남방정책의 첫 성과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날 하노이에서 체결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의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논의는 지난 2016년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을 거쳤다. 지난해 7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이 완료됐다.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양국이 투자하거나 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편성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 - 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이 이어졌다.

< 조선비즈 >

방통위,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조선비즈 안별 기자

입력 2019.03.26 16:36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에 원활히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함께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공동제작협정식에 참석한 응우옌 마잉 훙(왼쪽)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번 협정은 국가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와 교류 촉진을 위한 정부 간의 체결 협정이다.

한국이 투자하거나 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제 편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협정 체결 직후 EBS와 베트남 방송사 VTV간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즐거운 나의 집(가제)' 제작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양측은 정부 고위급 및 방송사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IT조선 >

기업
방송·통신

한베 인 공동 제작 콘텐츠 편성 규제 NO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3.26 16:36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공동 제작한 방송 콘텐츠가 방송 편성 규제에서 벗어난다. 한류 콘텐츠의 확산 속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이하 MIC)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응우옌 마잉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논의는 2016년 초 방통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지속적인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2018년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 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방송사 및 제작사 진출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공동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VTV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칭) 즐거운 나의 집' 제작에 대한 MOU 체결이 이어졌다. 한-베 공동제작협정에 근거를 둔 첫 번째

두 수장은 정부 고위급 및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응우옌 수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예방해 최근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방송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방송 공동제작의 [illegible]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홈쇼핑방송사 등 사업자들과 만나 현지 진출의 [illegible] 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효성 위원장은 28일 아세안 전체 인구 규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방송 분야에서의 신남방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최근 한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형성돼 있어 한국 방송콘텐츠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 전자신문 >

전자신문 | etnews

방통위베트남 정보통신부,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발행일 : 2019.03.26

<응우옌 마잉 훙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오른쪽)이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방송사·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촉진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효성 위원장과 응우옌 마잉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은 실질적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수장은 정부 고위급·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이 참여, 방송콘텐츠 관련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국회뉴스 >

국회 뉴스

홈 > 뉴스 > 뉴스 > 정부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방통위, 베트남 정통부와 '공동위원회' 발족

2019년 03월 26일 (화) 17:17:28 정종욱 기자 jhjung2@a-news.co.kr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했다.

▲ 응우옌 마잉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베트남과의 TV프로그램 공동 제작협정 논의는 2016년 초 방통위 제안으로 시작돼 다섯 차례의 국장급 협의체 가동과 실무급 세부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국장급 가서명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투자하거나 한국인력이 참여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편성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방송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방송사·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동 제작협정 체결 직후 EBS-베트남 VTV는 가칭 '즐거운 나의 집'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방통위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정부 고위급·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칭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에 베트남 정부·사업자·연구자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8일에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방송 분야에서의 신남방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호감도가 높고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어 한국 방송콘텐츠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율리안드레 다르워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17년 체결한 방송콘텐츠 양해각서 후속 논의 재개를 제안하고, 공동 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와 국장급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